

국가·세계에 기여하는 대학을 목표로!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 취임... "내실, 지속가능, 자긍심"

전주비전대학교는 11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5대 홍순직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유성엽 의원, 윤제춘 KBS전주방송총국장, 전종길 총동창회장, 김명국 농업회사법인(주) 변산알뜰푸즈 이사 그리고 보직 교수,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 해 홍순직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가·세계에 기여하는 대학을 목표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장은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선교중심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ICT 기반의 다양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선순환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을 계속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해 교육과정 수출과 해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와 봉사에도 적극 참여



전주비전대가 11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5대 홍순직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총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의 당면과제들을 순직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건실한 재정 확보와 재정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유형별 특강 큰 호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8~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학습유형별 특강 시리즈를 마쳤다고 전했다. 학습유형별 특강은 2017학년부터 학습유형검사와 연계해 실시하는 사후프로그램이다. 학습유형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태도 등을 파악하고 학습유형을 진단한 후, 유형별 특강에서 맞춤형 학습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가 '파란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파란사다리 호남·제주권역 대학 발대식.

진로개척에 꿈과 열정 지닌 대학생 모여라

전북대, 저소득 학생 해외연수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에서는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인 '파란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개발과 진로개척에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정부(70%)와 주관대학(30%)이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해 해외 대학에서 4주 동안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본교 72명, 전북·제주 권역 타 대학 18명 등 총 90명을 모집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파견 대학은 캐나다 센테니얼주립대학과 영국 울버햄튼 대학, 중국 상해 대학, 필리핀 산호세 대학, 베트남 하노이대학 등이며, 대학별로 4주 동안 연수 후 최대 6학점도 인정받는다.

학부 재학생으로 소득 5분위 이하, 장애인, 탈북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또는 'WEST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했던 학생, 2019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자 및 예정자,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은 참가 제한된다.

한편 참가 신청서와 수학 계획서, 질병 확인서, 성적증명서, 복수여권 사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063-270-4882)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5월 2일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 5월 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번 학습유형별 특강은 16개의 학습유형 중 스포츠관람형, 건축설계사형, 컴퓨터프로그램머형에 해당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학생들은 학습유형별 특강을 통해 자신의 학습태도를 점검하고 학습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OO학생은 학습유형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학습유형검사 뿐 아니라 기초학력평가 등의 다양한 학습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와 연계한 심화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학년도 고입, 학생 선택권 확대된다

출신학교·거주지 학군 중 선택 가능... 오늘 기본계획 설명회 열려

전북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진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학교 3학년부장(또는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을 안내한다.

2020학년도 고입 원서접수는 △전기고(특수목적고) 10월 21~25일 △전기고(특별전형) 11월 15~18일 △전기고(일반전형) 11월 20~22일 △후기고(공통) 12월 23~26일이며, 추가모집은 2020년 2월 6~7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0학년도 고입전형부터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존에 평준화지역 중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만 지원가능했던 것을, 출신 중학교가 속한 학군과 거주지가 속한 학군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신성적 산출 후 석차연명부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학교장이 결재하도록 해 두 번이던 결재방법을 한 번으로 간소화한다.

내신성적 산출지침은 성취도 환산점수에 원점수를 일부 반영한 뒤 내신 성적(300점)에 의한 석차백분율(%)로 산출한다.

/장은성 기자

"일하는 부모도 학부모교육 참여하세요"

전북교육청, 달빛학교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달빛학교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부모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달빛학교 학부모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마련된다. 올해 첫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 7시 도교육청 8층에서 개최된다.

성교육 하는 아빠로 유명한 박재균 씨가 '우리아이 성교육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는다.

이번 강연에서는 △성교육이 힘든 이유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자녀와 공감하는 방법, 부모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월 학교폭력 △6월 사교육 경감 △7월 독서교육 △9월 사춘기 교육 △10월 생명감수성 교육 △11월 경제교육 등 자녀교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정보요구를 해소해 줄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북학부모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녀 성장을 위해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특별기획 전시회 개최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은 오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학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시체험관 특별기획 자연관찰 드로잉展, 자연을 그리다를 연다고 밝혔다.

'자연관찰 드로잉'은 '생태드로잉' 혹은 '관찰그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관찰그르기가 일반 세밀화와 다른 점은 세밀화가 사진과 흡사하게 오랜 기간 걸쳐 그리는 작업이라면, 관찰그르기는 현장에서 직접 실물을 보고 펜치와 수채화 물감으로 짧은 시간에 그린 그림이다.

자연관찰 드로잉의 대부분 작품은 현장에서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기록의 의미가 강하고, 날짜와 장소 또한 남겼기 때문에 자연

과학 자료의 가치도 있다.

이번 '자연관찰 드로잉展'은 만화가이자 숲 연구가인 황형택 작가의 원화 작품 20점과 인쇄본 100점이 계절별로 전시되며, 자연물 드로잉 체험(선그리기), 드로잉 영상 감상 코너, 숲에 관한 책읽기 코너, 실내 숲놀이 코너(생태놀이) 등이 상시 운영된다. 주말에는 특별 프로그램인 '자연관찰 드로잉 체험'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로잉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해설과 함께 작품 작업과정 및 숲에 대한 작가의 철학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도록 '작가의 만남' 시간도 마련하는 등 전시와 함께 체험도 결집된 전시회로 구성했다.

/장은성 기자

